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기억하며 앉아 있을 때 눈을 뜨고 앉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걷고, 돌아다니는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억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질문:** 사람들은 신을 찾아서 여기 저기 방황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야?

**대답:**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한다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아주 많이 방황하게 만들었다. 신이 모든 곳에 있다면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신이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고 말한다. 신이 이름과 형태를 초월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를 찾겠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 저기로 방황하고 있다. 너희 자녀들의 방황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바바가 지고의 거쳐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체기관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과 형태를 초월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옴 산티.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너희들이 쉬브 바바를 기억하며 앉아 있다.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인 영혼들에게 말했다. 영혼들은 신체기관을 통해서 바바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들었다. 아버지가 물었다: 너희들은 너희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눈을 감을 필요가 있느냐?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에는 눈을 뜨고 있다. 앉아 있고, 걷고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억한다. 눈을 감을 필요가 없다. 영혼은 그의 아버지가 신체기관을 통해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이 낡고 불순한 세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지고의 거쳐에서 왔다. 이것이 너희들의 지각 속에 들어 있고 너희의 눈은 뜨여 있다. 바바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며 또한 그를 기억하고 있다. 누가 너희에게 이를 말하느냐?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너희 몸의 이름은 계속 변한다. 너희는 한 몸을 취하고, 그것을 버린 다음에 다른 몸을 취한다. 따라서 이름도 다른 것을 얻는다. 영혼의 이름은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도 영혼이고 너희들도 역시 영혼이다. 나는 지고의 거쳐에 거하는 지고의 영혼이며 그래서 지고의 영혼이라 불린다. 지고는 높은 중에 가장 높은 이를 말한다. 고귀한 영혼들도 있고 타락한 영혼들도 있다. 어떤 이는 자비로운 영혼이고 어떤 이는 죄 많은 영혼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영혼인 나의 이름은 언제나 쉬바 하나이다. 그는 반드시 이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이름과 형태를 초월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하늘이 있다. 그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다. 단지 빈 공간뿐이다. 그것조차도, “하늘”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대단히 미묘한 원소다. 좋다, 신인들은 그것조차 초월한 곳에 산다. 그것 역시 공간이다. 그들은 하늘 너머에 앉아 있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하늘이 있다. 그곳도 역시 영혼들이 앉아 있는 곳이다. 그곳도 브람 원소라고 불리는 하늘이다. 세 가지 원소가 있다: 물질, 미묘한 원소, 비물질. 영혼은 반드시 공간에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 가지 하늘이 있는 것이다. 이 하늘에서는 연극이 펼쳐지므로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비물질 세계에서는 연극이 펼쳐지지 않는다. 그곳을 브람의 원소라 부른다. 그곳에 영혼들이 거한다. 그곳이 모든 중 가장 높다. 세 가지 세계, 즉 세계의 세 층이 있다. 바다 밑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물 밑에는 그저 땅이 있다. 그 위에 물이 있다. 이것은 세 가지 세계이다. 사일런스(침묵, Silence), 무비(무성영화, Movie) 그리고 토키(유성영화, Talkie)이다. 쉬브 바바가 여기 앉아서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 눈을 감고 쉬브 바바를 기억해야 하는가?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감는가? 왜냐하면 눈이 그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고의 영혼이 이름과 형태를 초월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가 자갈과 돌에, 모든 것에 들어 있으며, 24번 화신하고, 물고기와 악어로 화신한다고 말한다. 사실 그 모든 것은 거짓일 뿐이다. 신이 모든 곳에 편재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다. 신봉의 길은 방황하며 넘어지는 길이다. 그들은 나까지도 대단히 헤매게 만든다. 지금 신봉자들은 신봉과 방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신을 기억한다. 그들이 여기에 와서 그를 만날 때 말한다: 바바, 저는 당신을 몹시 찾았습니다. 무척 방황했지만 당신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너희가 방황을 했느냐? 바바, 저는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는 오직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콤바 멜라에 헤매기 위해 간다. 그들은 어디든지 물이 있는 곳이면 가서 몸을 씻는다. “콤바”는 만남을 의미한다. 사실 그것은 영혼과 지고의 영혼과의 만남이다. 그러나 신봉의 길에서는 그것을 대양과 강의 만남으로 만들었다. 모든 나라에서 멜라가 일어난다. 그것은 물에 몸을 씻는 멜라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을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신봉도 안 믿고 지식도 안 믿는다. 그들은 인간은 태어나고 죽으며, 그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믿는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다. 한 가족 안에서도 부인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과 다르다. 한 사람은 순수성을 믿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다. 지금 너희들은 슈리마트를 받고 있다. “슈리마트는 신의 말씀이다”가 기억된다. 그의 지시를 따름으로서만 인간에서 신인으로 변한다. 지금은 신인 종교가 없다. 그것의 징표인 그림들이 있어서,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들은 과거에 통치를 하고는 가 버렸다. 가장 오래된 것은 신인들의 것이다. 그들은 신 크리슈나에 관해 말하거나 “신 슈리 나라얀”이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 있었으며 그것은 낙원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안다. 크리슈나는 낙원의 주인이었다. 그는 황금시대의 왕자였다.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크리슈나가 어떻게 동시대로 갔느냐? 그는 똑같은 이름과 형태로 갈 수는 없다. 그 때 살아 있는 형태로 존재했던 이의 생명 없는 형상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 영혼은 84생을 취하고 지금 여기에서 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이름, 형태, 장소, 때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 왔다. 영혼이 말한다: 나는 하나의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취한다. 그의 이름, 형태, 장소, 때, 친구, 친척 등은 모두 다르다. 다음 생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신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태양 왕조에서는 8생을 태어날 것이다. 한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취할 것이다. 그곳의 자궁은 감옥이 아니다; 그곳은 자궁의 궁전이다. 여기에서는 자궁의 감옥에서 대단히 많은 벌을 경험한다. 슬픔을 겪을 때 그들은 말한다: 됐다, 이제 나가게 해 달라! 나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밖은 마야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된다. 거기에서는 영혼이 자궁의 궁전에서 편안하게 쉰다. 아버지가 말한다: 나는 오직 너희에게만 모든 베다와 경전의 요지를 설명한다. 앗차, 많은 사람들이 몸을 씻으러 콤바 멜라에 간다고 바바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곳에는 많은 군중이 있다. 알라하바드에는 세 강이 만나는 (트리베니) 멜라가 있다. 그것은 만남이 아니다. 대양과 강들이 만나야 한다. 저것은 두 강이 만나는 강들의 만남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 번째 강은 숨어 있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한다. 숨어 있는 강이란 있을 수 없다. 단지 두 개의 강이 있을 뿐이다: 눈으로 보아도 둘 뿐이다. 하나는 물이 깨끗하고 하나는 물이 더럽다. 다른 것은 없다. 갠지스 강과 자무나 강이다. 셋이 아니다.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다. 합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캘커타에서는 대양과 브람푸트라가 만난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멜라가 열리는 강 건너편으로 간다. 그들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들은 아마르나트로 순례를 간다. 그곳에서도 역시 쉬바링검의 타원형의 형상이 있다. 그것은 역시 집에 둘 수도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방황하는 것도 또한 드라마에 정해져 있다. 그들은 트리베니 강(세 강이 만나는 곳)에 가면서 그곳이 정화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강들이 어디에서 오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강들은 산에서 온다. 그러나 물은 바다에서 온다. 구름이 비를 내리면 산이 높기 때문에, 물은 얼음이 된다. 그리고 나서 해가 비치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모여서 강으로 흐른다. 그러니,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지식의 대양과 지식의 강으로서 정화자인가 아니면 물로 된 대양과 강이 정화자인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몹시 헤매고 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강은 정화자가 아니며 단지 빗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물은 구름에서도 온다; 구름은 바다에서 물을 끌어온다. 물은 정화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노래한다: 정화자는 시타에게 속하는 라마이다. 오 정화자여 오소서! 영혼들은 노래한다: 오 불순한 자들의 정화자여! 바바여, 자비를 베푸소서! 아버지가 설명한다: 신봉에서 헤매는 것을 통해서는 아무도 정화되지 않는다. 강들은 영원하다. 물은 마시고 들판에 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정화를 하겠느냐? 지금은 너희들의 마지막 생이다. 나는 너희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황금시대는 순수한 세계였다. 이것은 불순한 세계이다. 순수했던 사람들이 84생을 취하면서 불순해졌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해지기 위해 아버지를 소리쳐 부른다. 반 사이클 동안 하강하는 단계가 있었다. 황금시대에 바라트는 매우 행복했었다; 그곳은 순수했었다. 지금은 불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쳐 부른다: 오 신, 아버지시여! 그리고는 그가 이름과 형태를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소리쳐 부르고 있는 것이냐? 그들은 이만큼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이 별과 같다고 말한다. 저 경이로운 별이 이마의 중앙에서 빛난다. 영혼은 점과 같이 아주 작다. 틸락도 또한 이마에 찍는데, 그러고 나서 경이로운 별이 이마에 빛난다고 말한다. 것처럼 작은 점과 같은 영혼 안에 84생의 불멸한 역할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 연극 전체가 불멸하다. 사이클은 계속 돈다. 세상이 한 곳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있었던 본래의 영원한 신인 종교가 더 이상은 없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반드시 온다. 내가 와서 다시 한번 신인 종교를 세운다. 사이클은 계속 돈다. 역사와 지리가 다시 반복된다. 황금시대에는 태양 왕조의 왕국이 있었고 은시대에는 달 왕조가 있었다. 지금 너희들은 다시 84생에 관해 알고 어떻게 상승의 단계로 들어가는지를 안다.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에게 불순한 데서 순수하게 변하는 길을 보여 준다. 그는 “눈을 감고 나를 기억하여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동안 나를 기억해야 한다. 눈을 감으면 음식을 어떻게 먹겠느냐? 파리도 삼키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영혼은 바바가 너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크리스나는 인간이었다. 어떻게 그가 신이라 불릴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말한다: 지금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순수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순수하게 지낸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들은 다시 불순해진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라고 고취하는 순례는 영적인 순례이다. 아버지가 말한다: 불멸의 나라로 가길 원한다면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 영혼들은 오직 순수해야만 날아갈 수 있다. 너희들의 마지막 생각이 너희를 목적지로 안내할 것이다. 오직 아버지의 슈리마트를 따름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슈리마트는 말한다: 오 영혼들아, 끊임없이 한 분만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해방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런 다음 해방된 삶 속으로 온다. 이 사이클을 이해함으로써 너희들은 지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 너희들은 순수했었다. 그러므로 누가 너희를 불순하게 만들었는지 아버지가 물을 것이다. 지금 이때 너희 자녀들은 라반의 왕국이 시작된 다음부터 너희가 불순해졌다는 것을 안다. 반 사이클 후에 세계가 낡아진다. 그런 다음 너희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행복을 얻어야 한다. 나 자신이 와서 너희에게 그것을 준다. 나는 너희를 정화시키는 반면에 라반은 너희를 불순하게 만든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을 주는 반면에 라반은 너희를 저주한다. 이것은 게임이다. 라반이 너희의 큰 적이다. 사람들은 라반의 인형을 만들어서 불에 태운다. 너희들은 누가 쉬바의 형상을 불태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다. 쉬바는 몸이 없다. 라마는 행복을 주는 분인데 어떻게 그를 불태우겠느냐? 슬픔을 주는 것은 라반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라반을 불태워 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라반의 왕국이 있었다는 것이냐? 라마의 왕국은 없었던 말이나?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라반의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반 사이클이 지난 후부터 시작된다. 너희 모든 드로파디들은 소리쳐 부른다: 바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아하!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들에게 불순해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한다. 너희들은 용기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애착의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애착의 정복자가 될 때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에게는 오직 쉬브 바바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 만일 계속해서 남편과 자식 등을 기억하면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기억하여라.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슈리마트를 따르고 모든 이에게 순수해지는 길을 보여줘라. 정화자 아버지를 소개할 욱티들을 만들어내라.
2. 아버지에게 피신해서 너희의 유산을 차지하려면, 모든 애착을 끊은 이가 되어라. 눈을 뜬 채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여라.

**축복:** 아버지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뭇으로써 한결같이 행복하고 마야의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머물러라.

마야의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머무는 수단은 아버지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무는 것이다. 가리개 아래 머문다는 것은 행복한 상태로 지낸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모든 걱정을 이미 아버지에게 다 주었다. 행복을 잃는 자들, 약해지는 자들은 마야의 그들에 영향 받는데 왜냐하면 나약함이 마야를 불러내기 때문이다. 만일 꿈에라도 마야의 그들이 오면 너희는 계속해서 괴로워하며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보호의 가리개 아래 머물러라. 기억이 바로 가리개다.

**슬로건:** 멀리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들은 물리다르 마스터들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